

남가주-뉴욕 양교협, MOU 체결

미주 교협간 협력 선례 “복음 전파 위한 협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MOU를 체결, 복음 안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주 내 지역교회 연합체간의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뉴욕교협과 남가주교협의 MOU 체결은 타주에도 교협간의 교류 및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양 교협 관계자는 27일 오후 LA 한 인터뷰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업무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체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교협 본연의 업무 증진 △자연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업무를 제휴해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사업 △상호 인적 자원을 교류 △이단들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대처 활동 △기타 교류협력가능한 분야 발굴

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와 뉴욕교협 회장 김종훈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이날 아르헨티나에 집회차 현지 방문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뉴욕교협 회장 김종훈 목사는 “교협 차원에서 MOU를 맺게 된 것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해 여름 뉴욕은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컸는데 남가주교협에서 구호 헌금 2만불을 모아 지원해줘서 감사했다”며 “향후 남가주와 뉴욕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힘이 될 것이라 본다. 이번 체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해 나게 되리라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사선 오른쪽)와 뉴욕교협 회장 김종훈 목사(왼쪽)가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는 “미 한인교계 최대 단체인 두 교협이 MOU를 체결한 데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미국의

결혼보호법과 프로포지션 8이 위험으로 판결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두 교협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감으로 이겨내리라 믿

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욕교협에서 남가주교협에 지난해 성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즉각 재개... 재심 기간 중 중지요청은 기각

29일 토요일 오전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정에는 결혼 신고를 마치려는 동성 커플들이 줄지어 섰다. 26일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8에 대한 심리를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인 제9순회 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이 최종 유효한 것으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원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25일 뒤에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되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를 뒤인 28일이 되자 즉시 프로포지션8을 폐기했다.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벌인 당사자인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는 이 결정 직후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주례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카말라 해리스가 맡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효력 발생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을 모두 생각하고 법원과 시 당국, 주 법무당국이 나서서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

시스코에서부터 일사천리로 동성결혼을 재개하고 그 첫번째 커플로 소송 당사자들, 주 법무장관의 주례 하에 실시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4년 샌프란시스코가 시의 권한으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며 큰 논란이 일었고 한달 만에 법원의 명령으로 이는 중지됐다. 2005년에는 동성결혼범의 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공화당 소속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결국 2008년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 금지 주민 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을 내 52%로 통과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곧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소송이 접수됐고 2010년 SF지법, 2012년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각각 위헌 판결이 났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타주와 달리

동성결혼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와도 반했지만, 오로지 법원의 판결만으로 합법화 됐고 또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재개된 것이다.

이 과정 중에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 측이 25일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됐다.

이에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같은 법률 단체가 25일간의 유예 기간 내에 캘리포니아가 성급하게 동성결혼을 재개했다고 중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카운티들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출생등록국 직원들에게 동성결혼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합법이란 사실을 주지시켰다. 즉시 결혼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INTERVIEW

“나이스크는 진정한 예배 회복을 추구”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찬양리더 오기드온 사역자 인터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다. 이는 삶의 예배를 의미한다. 삶을 드리는 예배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지칭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도시 선교적 운동, 회복의 신학 연구 학술운동,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운동, 나라와 가정을 살리는 운동을 표방하며 나이스크는 기도 에 힘쓰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나이스크의 컨퍼런스를 수년간 이끌며 많은 예배 회복을 체험해온 찬양리더 오기드온 사역자(사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으로 이어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성교비전의 꿈을 이곳에서!

■ 미주성결대학교의 특징
 - 캘리포니아 주정부 BPPE 인가 및 ABHE 회원 (Candidate Institution)
 -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특 전
 - SEVIS I-20 Form 자체발행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 (11종류)

■ 학위과정
 - 학부: 신학사 (B.Th.)
 -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 석사(M.M)

■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입학서류: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4. 신청마감: 가을학기 (8월 20일), 봄학기 (1월 20)
 5. 입학상담: 연중 수시

www.aeui.us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일부다처·근친상간·소아성애·수간’ 도 차별하면 위헌?



당시 방송에 출연한 코디 브라운 씨.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 개념 붕괴, 파장 어디까지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혼보호법이 폐기된 이후, 환호하고 있는 건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다. 일부다처주의자들도 “일부다처제가 미국에서 합법으로 정착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가까스로 권리를 획득한 동성애자들은, 일부다처주의자들의 이런 행동이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별개의 문제”라며 애써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일부다처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서 이유는 결혼보호법의 핵심 규정인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위헌 판결’ 났기 때문이다. 즉 결혼을 규정하던 핵심 축이 위헌이라면,

이제 한 남성과 한 남성의 결합이든, 한 남성과 여러 남성의 결합이든, 법이 결혼을 제약하는 것은 수정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한 남성과 여러 여성도 문제가 없다면, 한 남성과 여러 여성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

동성애자들이 일부다처제와 동성결혼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이 둘의 관계를 과거부터 지적해 왔다. 창세기 2장에 나온 바 “하나님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부부를 맺으셨다”는 것이 부정되는 순간, 가정은 구성하는

규범도 붕괴되고 건강한 가정 규범을 벗어난 일부다처, 일처다부, 동물과의 성관계, 소아성애 등이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기독교방송 진행자인 브라이언 피셔 씨는 “이번 판결은 일부다처제,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라이언 앤더슨 연구원은 “(전통적 결혼을 부인하고) 결혼을 재정의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에는 어떤 논리적인 범주가 없다. 이것은 여성들과 어린이들, 모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반대표를 던진 앤토닌 소토마이어 대법관도 판결에 앞서 “만약 결혼이 근본적 권리라고만 주장한다면 어떤 제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근친상간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물은 바 있다.

다음세대가치관운동(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의 새라 김 대표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폐지 이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결혼중립법(Respect for Marriage Act)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랑하는 두 사람만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

일부다처주의자는 “전통적 가족 가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앤 와일드 씨는 “매우 기쁘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두세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조부모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고 동성 부부 가족도 있다. 동성결혼이 확대되면 일부다처 결혼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타 주에 거주하는 일부다처주의자 조 다거 씨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일부 해소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혜택이 오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한 가지 있다. 동성결혼자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원했지만, 일부다처주의자들은 그저 법이 금지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와일드 씨는 “일부다처의 경우,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다양한 결혼 관련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저 범죄 취급만 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에서 일부다처제는 불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다처제를 법망을 피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10년 케이블방송 TLC에 출연한 코디 브라운은 자매지간인 4명의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한 여성과만 결혼했고, 나머지 3명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상 일

부다처제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1879년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Reynolds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부다처제가 신앙의 근본적 교리라고 주장하는 몰몬교들의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적결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몰몬족은 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몰몬은 “일부다처제는 가족이나 영적 성장 등 미국의 가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 일부다처제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몰몬은 그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며 일부다처제를 도입했지만, 법의 철폐를 받은 후 1890년 당시 총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이 결국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드럽의 결정은 몰몬교회 안에서 큰 반발에 직면했고, 교파가 갈라지는 사건도 벌어졌다.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코디 브라운도, 몰몬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도형제교회(Apostolic United Brethren)의 신봉자였다. 현재 몰몬은 일부다처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맨 오브 스틸’의 수퍼맨은 구원자인가 파괴자인가

영화 내용 놓고 美 교계서 논란... 목회자 대상 특별시사회도 진행돼

수퍼맨은 항상 구원자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었다. ‘암제’의 기간 동안 2명의 유대 이민자들 사이에서 현대판 모세와 같이 태어난 그는, 몇 년에 걸쳐 구원자적인 성격을 개발하고 이를 충분히 기른다.

워너 브라더스가 내놓은, 수퍼맨 시리즈 영화의 최신판 ‘맨 오브 스틸(Man of Steel)’이 美 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앙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업체 ‘그레이스 힐 미디어’를 고용한 워너 브라더스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시사회를 여는 한편, 비싼 비용을 들여 교회용으로 특별 제작된 트레일러와 맨 오브 스틸 관련 설교 노트가 포함된 ‘크리스천 테마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퍼맨이 그리스도와 평행이



수퍼맨 영화 맨 오브 스틸의 포스터

론을 갖지만, 나는 영화를 그것으로만 채워진 않았다. 그리스도는 신화일 만한 수퍼맨의 메타포”라고 언급했다.

워너 브라더스 측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관람한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는 수퍼맨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말라는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회 사제이자 가톨릭 주간지인

‘National Catholic Reporter’의 평론가 토마스 리스 목사는 영화 ‘맨 오브 스틸’을 본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수퍼맨은 적그리스도”라고 적었다. 리스 목사는 “사랑이 아닌 초능력으로 악을 정복하고, 악당들을 후려친다”고 지적했다.

잭슨 가이든은 미국 한 기독교 잡지에 “수퍼맨은... 그들의 구세주가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는, 미국인들의 심리적 부분을 가장 잘 만족시켜준다”는 감상평을 올렸다.

많은 기독교 평론가들이 맨 오브 스틸의 지나친 플롯과 특수효과에 대한 세속적인 비평에 동의하지만, 이들의 주된 불만은 영화의 질에 있지 않다. 릴리전뉴스서비스 블로거인 조나단 마리트는 “영화 마케팅의 모든 초점이, 기독교의 상품화에 한 걸음 나아

간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수퍼맨의 진짜 문제는, 그가 자신의 목표-주로 악당 조드 사령관을 죽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영웅의 성품, 즉 ‘비록 가능하다고 해도, 적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깬 것이다.

수퍼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언제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수퍼맨은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내리는 정의의 사도로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제프 웨이스(Jeff Weiss)는 ‘리얼 클리어 릴리전(Real Clear Religion)’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 수퍼맨은 주인공이 가진 전통적인 도덕적 코드를

깎았다”고 언급했다.

맨 오브 스틸에서 수퍼맨과 조드 사령관의 끝없는 싸움은 도시를 파괴하고, 실제로 언급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는다. 한 비평가는 이를 두고 ‘재난 외설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비 가이드 발행인 테드 베이어는 “할리우드가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양측에 다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퀸트 스캇 목사는 “제작사가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제작사를 이용한다.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강혜진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5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제4기 의료선교사 수강교육을 무사히 마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님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며 의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교육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의학분야의 중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술을 습득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의료선교사 제5기 수강신청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모집 안내

- 신청 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계신 남녀분
- 모집 대상 :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 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4. 의료봉사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분
-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매회 2시간 교육)
- 접수 마감 : 2013년 7월 14일
- 개강 일자 :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 교육 장소 : LA 지역 2836 W 8th #106 Los Angeles (금란 노인 상호회 건물)
Orange County 8201 2 Garden Grove (기독 강의실)
-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Email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 내용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치료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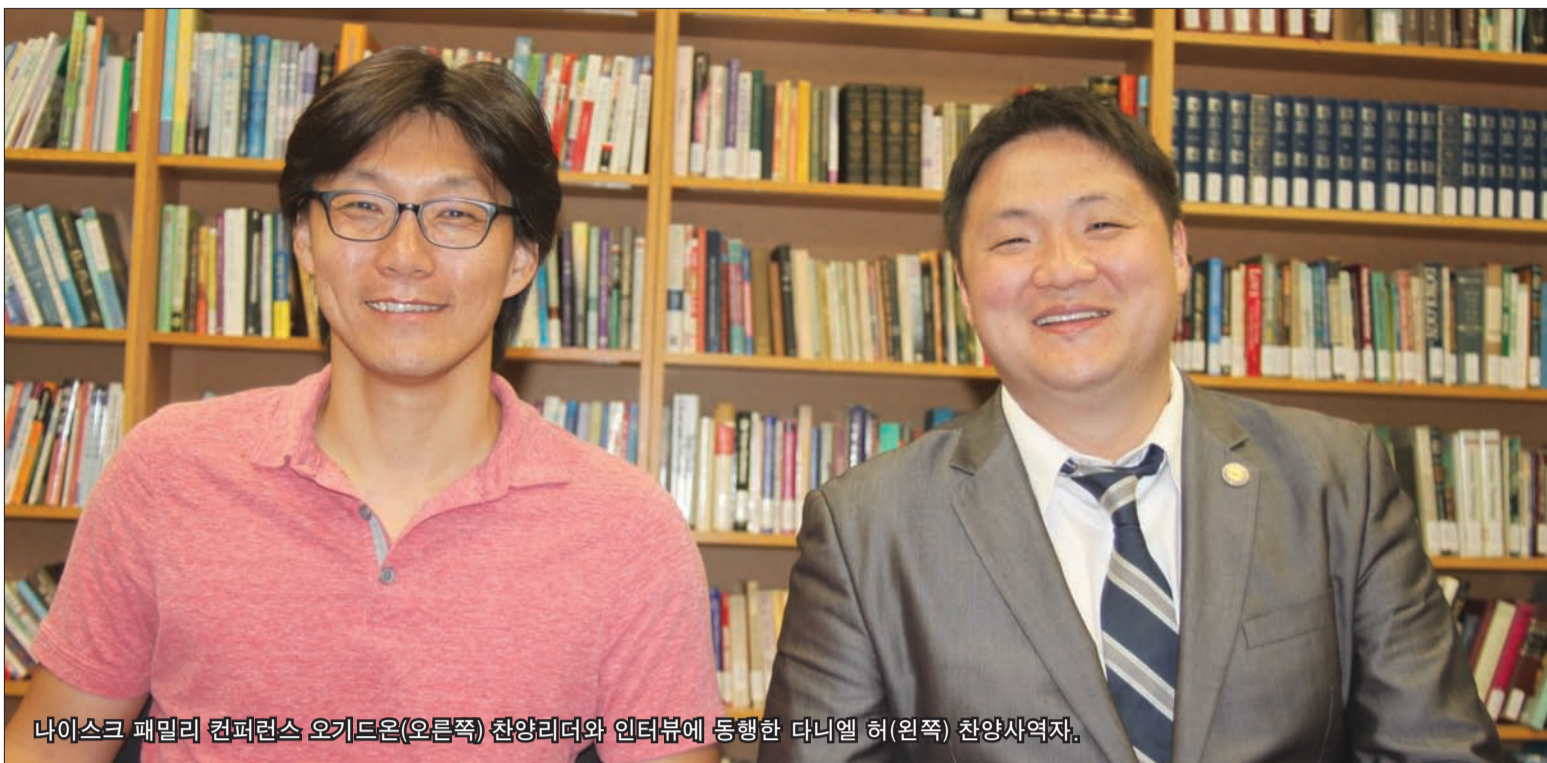
- 근육 치료학 : 각종통증 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 영양 물리학 : 자연식 요법 (성인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기치료는 의과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오랜 기간 임상을 통하여 확고하게 연구 개발된 치료법으로 단기간에 완벽한 치료술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료후 특전

-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 해외 파송 선교사님은 후원 하어드립니다.
- 부부가 수강신청시 한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오그드온(오른쪽) 찬양리더와 인터뷰에 동행한 다니엘 허(왼쪽) 찬양사역자.

까지 관심을 기울여서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어권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영어와 한국어 찬양을 섞어서 부르고 있다. 한국어 찬양 밑에는 영어 발음을 그대로 표시해서 외국인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발음을 표시한다. 이런 작은 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고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간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 찬양스쿨에서 준비한 것은.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컨퍼런스를 앞두고 다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지금은 GTS가 정식 찬양학교로 등록돼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찬양 사역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신앙적인 문제와 신학과 음악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나이스크리즘을 통해 철저히 교회론과 예배론을 배우게 된다.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부분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령론과 예배론을 가르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찬양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찬양학교의 목적이다. 이번에 찬양학교 수업을 마친 이들이 찬양 사역자로 서게 된다.

-끝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바람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힘을 얻어서 비전을 갖고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예배가 진정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청년들 또한 비전을 회복해 개인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길 소망한다.

<1면으로부터 받음>

-먼저 나이스크 운동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배회복을 위한 도구를 말한다. 예배회복을 위한 5대 신앙생활의 원리, 행동강령이 있다. 새벽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성경에 독, 성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개인전도, 성령의 교통을 위해 성수주일, 십일조로 예배를 회복해 교회 회복을 이루려는 것이다.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해볼 때 이 5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예배, 삶의 회복까지 나가자는 운동이다.

매년 소도시와 대도시를 다니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껏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렸다. 내년에는 필리

핀, 인도,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열고 있고 올해는 애리조나에서 '오늘도 좋만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패밀리 컨퍼런스에서는 목회자와 사모, 모든 성도들이 모였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각 트랙별로 나누어서 열렸다.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스케줄이 빽빽하다. 보통 셋째 날 오후에는 금식을 하고 참가자들이 노방전도를 나간다. 저녁마다 감사목회자를 초청해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 통해 예배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세대와 문화, 연령을 초월해서 열리게 된다. 요즘 예배는 세대별로 나뉘져 있어서 서로 간에 교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와 어른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대에 갇히지 않는 현상을 지금까지 많이 보았다.

-컨퍼런스 특성은?

다른 컨퍼런스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나이스크 컨퍼런스는 훈련 중심으로 열린다. 하루를 보면 새벽기도로 시작으로 저녁기도회까지 바쁘게 진행된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비전을 얻게 된다. 주로 청년들에게 비전을 세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초점은 탈교회주의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목적으로 열린다는 것이다. 주로 교회에서 단체 단위로 등록을 해 참여한다. 올해까지 18년 동안 열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어를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저녁 예배 때는 동시통역이 이뤄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언어를 100%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받는 은

혜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도전을 받게 된다. 컨퍼런스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회에 돌아가 통역까지 하는 것을 보았다. 개인이 은혜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돌아가 사역을 돕는 것이 나이스크의 목적이다.

-참여하는 강사들은 누구인가.

남서울중앙교회의 피종진 목사, 뉴욕서광교회의 최고센 목사, GTS(Goshen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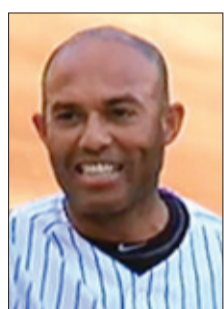
-찬양팀을 소개한다면.

찬양팀은 나이스크에 동참하는 성도들로 구성돼있다. 특징은 보여주듯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라 청중과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둔 찬양이라 할 수 있다. 박수와 몸동작 등 세세한 부분

‘양키스 특급 투수’ 리베라 “올시즌 은퇴 후 선교에 전념하겠다”

아내 클라라와 함께 교회 개척 및 미국·파나 등지에 교회 설립

미국프로야구(MLB) 뉴욕 양키스의 특급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44·Mariano Rivera)가 2013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선교에 전념할 것이라 전해지면서 잠잠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마리아노 리베라

는 물품을 공급하며 구제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힘이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으로 맡은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고향인 파나마에서 젊은 시절 만났고 늘 믿음을 붙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03년 세 아들 중 막내를 출산할 때 극

심한 출혈로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회생했다고 간증한다. 그래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힘’이란 뜻의 ‘Jaziel(야스엘)’이라 지었다.

199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래 양키스를 떠나지 않은 리베라는 올스타에 12번이나 선정됐으며, 포스트시즌에서만 42세이브를 기록했다. 또 그가 있는 동안 양키스는 5번이나 월드시리즈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통산 608세이브에 방어율 2.21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을 뒤로 한 채 마리아노 리베라는 올 시즌을 끝으로 교회 사역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미 그는 수년 전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시작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는 물론 고국인 파나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지에 교회를 세웠다.

2011년엔 폐쇄돼 있던 노스애비뉴장로교회를 구입해 300만 달러를 들여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장지원 기자

Advertisement for Chiu Chau Mandoo. Features a photo of dumplings and text: "치우차우만두",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Advertisement for Kevin Yoo's insurance services. Text: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Header: "LOS ANGELES ORT COLLEGE". Text: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Main headlin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for Grace and a list of career programs like Medical Office Management, Computer Aided Design, etc.

과잉 은혜 사로잡힌 목회자 죄 심판 지옥 십일조와 구약 거부

미국 보수주의 교계의 대표적 인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Joseph Mattera, 뉴욕 레저렉션교회)가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징(8 Signs of Hypergrace Churches)”이란 칼럼을 통해 은혜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경의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는 교회들을 꼬집었다.



조셉 마테라 목사

그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떠나 치료 요법을 강단에서 설교했으며 특히 최근 몇 십년 간은 치료 요법으로부터 격려하는 말들만 늘어놓는 설교로 변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교회와 많은 운동들이 복음을 왜곡한 채 자기 자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과잉 은혜(hypergrace)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뿐 아니라 목회하며 가르치도록 하시는 분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며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는 것”을 과잉 은혜 증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그는 “이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도덕폐기론과 수세기 동안 싸워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며 구약에 있는 법들은 폐기되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도 되는 자유를 누린다는 생각”이라 설명했다. 마테라 목사는 로마서6:1-2를 들며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과잉 은혜에 사로잡혀 복음의 본질을 잃는 교회가 보이는 8가지 징조를 아래와 같이 꼽았다.

1. 먼저 설교자가 죄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죄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찾아 보기 어려우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에서만 간혹 들을 수 있다. 반면, 법을 강조한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곳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다.
2. 목회자가 현 시대 문화에 대해 의로운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새로운 교인들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낙태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슬쩍 피한다. 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공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동조 행위”라고 비난했다.
3. 구약은 무시한다. 구약은 설교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사용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신약과 구약은 조직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이 있는 것이다.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다.

4.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사역을 이끌게 한다. 마테라 목사는 “성적 방탕함과 술취함이 복음주의적 교회에 만연하며 사역자들 중에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5. 목회자가 제도적 교회(institutional church)를 거부한다. 그들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을 “더 이상 현대 문화에 맞지 않은 구식 학교” 취급한다.

6. 목회자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거부한다.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앞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서부터 있었다. 그리고 마테라 목사는 23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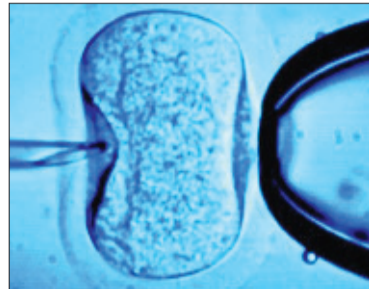
7. 설교자가 긍정적인 동기만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설교자는 건강, 부, 번영,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인생의 성공만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있는 내용이지만 균형감을 상실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 양식이 된다.

8. 교회 중직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죄적 일상 속에서 산다. 죄나 회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오직 은혜만 강조하면 성적 타락이나 술취함, 온갖 육체적 죄에 대해 느슨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도덕폐기론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위험한 경향이며 이런 경향을 지지하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갖되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아기는 한 명인데 낳아준 부모가 세 명? 생명윤리 논란 예고

“원하는 대로 태아 제조” 하는 치료법 英 의회 제출



생물학적 부모가 3명이 되는 체외수정법이 거센 생명윤리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핵 없는 난자를 각각 추출해 하나의 온전한 난자 형태를 제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편의 정자와 수정하게 되는 난자는 아내 난자의 핵과 제2 여성의 핵 없는 난자 간의 결합물이 된다.

이런 치료법으로 태어난 아기는 당연히 총 3명으로부터 유전자를 제공 받은 2만여 유전자 외에 제2의 여성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진 37종의 유전 정보도 아기에게 있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부모가 3명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난자 기증자가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거나 아기가 자신에게 난자를 기증한 이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지만 이 치료법은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영국 정부가 유전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세 명 체외 수정법(Three person In Vitro Fertilization)”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해 생명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치료법은 여성의 난자 속 미토콘드리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것이 아기에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타인의 난자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 기능을 하며 어머니를 통해 유전된다.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일반적 생식의 과정이다. 그런데 남성의 정자와 결합한 여성의 난자 중 미토콘드리아에 결함이 있다면 이것은 지적 장애와 근육, 심장, 간 등에 유전병을 아기에게 발생시킬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먼저 아내의 난자에서 핵을 분리해 낸 후, 핵이 분리된 난자는 폐기되고 건강한 제2의 여성으로부터 추출된 핵이 없는 난자로 대체된다. 즉, 두 여성의 난자에서 핵과

여전히 시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간이 자신의 의도대로 태아의 유전 정보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 복제나 소위 인간 제조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생명윤리센터의 헬렌 와트씨는 “생명인 태아를 분리된 객체의 조합물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기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사랑을 받을 존재이지 조작되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처럼 여겨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교육기금의 사라 노크로스 씨는 “이런 치료법이 비록 비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매우 안전하며 어린이들이 심각한 유전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 준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나성열린문교회, 1년 만에 새 성전 되찾을 듯

용자 상환금 미납으로 새 성전을 압류당해 쫓겨났던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가, 퇴거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고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현성 목사

나성열린문교회 박현성 목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개월 내에 예배당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건축을 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경험해 왔는데, 한인사회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지난해에 퇴거명령 무효 판결이 나서 현재 다시 들어

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성열린문교회는 24일 LA카운티 민사항소법원으로 부터 퇴거명령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건물 압류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건물을 차압한 용자대출기관인 복음주의신용조합(ECCU) 간의 차압 무효소

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

교회 측은 “ECCU는 용자대출기관이 공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을 깨고, 자신들이 정한 건축업자를 고용하도록 계약에 포함시켰다”며 △사기 △부당한 압류처분 △부당한 전환 △구두계약위반 △약속 불이행 △불공적이고 기만적인 사업 관행 등 소송 사유를 주장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3일에 배심원 재판을 통해 건물 소유권이 결정된다. 이 교회는 지난 2005년 LA한인타운 동쪽 외곽지역인 윌셔 블러바드

어린이전도협회, 바이블캠프 개최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13 뉴라이프 바이블캠프(New Life Bible Camp)>가 7월 15일부터 3박 4일간 터헝가(Tujunga)에 위치한 란초 이바라(Rancho Ybarra) 크리스찬 캠프장에서 열린다.

이번 캠프는 ‘F9, 성령의 열매 맺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복음

을 통한 구원과 확신을,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는 영적 성장과 성령의 열매맺는 자기관리법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열린다. 협회는 “어린이들의 사회성 개발과 신체적 건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열매맺는 신앙을 배우는 캠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3~7학년. >문의: (213) 382-1544 / www.cefkoc.com

와 보니브레 예비뉴 교차로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예배당 신축을 시작했

다. 현재 완공 3%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초속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미드웨이)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장재호 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다!”

장재호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과를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의 사명치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이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능멸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체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과를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치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중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장재호 목사

- 총회신학연구원 졸업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명예박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21세기 영성지도자 협의회 총재 역임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역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역임
- 선목회 회장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전국기도원 총연합회 총재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 성령교회 당회장(1970~현재)
- 성은동산 원장(2000~현재)

이 책을 구입하시면 우송료를 제외한 금액이 선교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선택된 자의 은혜보장

창세기 12:1~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16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

여러분들 중에 혹여 생각하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신이 선택하여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아버지 앞에 세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또 선행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은혜보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항상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무엇을 청구하든지 다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BC 2166년에 태어났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테라로 여기 창세기 11장31절에 소개되고 있고 그에겐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두 형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때 형편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바그다드 동남쪽에 쿠웨이트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 동남해안에 바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시대에 세계적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 특산물의 총집결지였습니다. 그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부와 온갖 영화를 만끽하며 사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남녀간에 놀아나고 이런 죄악의 온상 같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어 살기 좋은 곳으로 집결해 살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의 미신과 우상이 그곳으로 총집결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테라가 손재주가 좋아서 가지가지의 우상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우상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어서 엄청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우상 장사하는 일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주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못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지침을 하달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

첫 번째 행동지침은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잔뼈가 굵어지면서 생활터전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즉시 너는 내가 살아온 네 생활의 본거지인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지침은 친척을 다 내던지고 떠나라.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말형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 훗날은 아들 하나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조카가 삼촌 밑에 삼촌을 도우며 할아버지를 도와 그 우상가계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조카도 두고 가길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행동지침은 아비도 내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인연을 모두 다 자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사가라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2)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내외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걸 전혀 이해하기 곤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胎)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고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끊어야 하고 떠나야 할 것이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를 실천했을 때에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게 해서 친하 만민이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복을 내리게 해주마” 이것이 삼중축복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깊지도 아니해서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중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만 지켰습니다. 늙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하란이란 곳까지 갔습니다. 꽤 오래 걸려서 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나귀에다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족을 데리고 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 행보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중간지점인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테라가 숨도 차고 늙고 기력이 쇠잔해서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여기 머물러 살자고 하며 자신이 죽거든 묻

어주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에 가서 복 받고 잘 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빨리 가나안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이니까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사람의 생각, 혈연의 인연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붙들고 주저앉는다고 그곳에서 여러 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게 되는 불행한 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결국 돌아가시고 그곳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지내던 중 그 땅에 기근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흉년 속에서 자기를 불러오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의 대책을 바랄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직 초보여서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이있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 내외를 데리고 재산과 가족을 끌고 남쪽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땅이 없는가 하고 더듬어 내려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 때까지 신앙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3절~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

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아브라함의 옛 사람은 아버지 테라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테라에게 붙들려 하란에서 여러 해를 지체하느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 구조적인 의식, 인간의 생활 관습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적 체질로 바뀐 사람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세상 핏줄의 인연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때까지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 무장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를 아주 자신있게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 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얻은 구원을 이루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아브라함. 이 세 가지를 더디 벗어나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완전히 벗어나고 나니까 약속의 복이 서둘러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많이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 사람과 행실을 빨리 뜯어 고치고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둘러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부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방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성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성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매일성경 독자세미나

역대기하

〈매일성경〉 독자들을 위한 독자세미나가 이번 7-8월호의 본문인 역대기하(歷代記下)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매일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독자는 물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묵상나눔 인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역대기서(7-8월 본문)

- **일시** : 7.11(목) 저녁 7시 - 9시 30분
- **강사** : 김선익 교수 (미주장신, 구약학 / 미주서부장로교회)
- **장소** : **총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
Tel.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회비** : 자유헌금
(〈매일성경〉과 〈묵상과 설교〉의 보급에 사용됩니다.)

* 성경묵상 훈련이나 독자세미나를 개최하기를 희망하시는 교회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hkohpastor@gmail.com

운명적 내 짝

“과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짝이 있는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죠?” 최근 결혼예비학교를 마치고 받은 질문 중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예정된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철저히 믿는 칼빈주의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순간적으로 ‘단 한 명의 예정된 상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며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다행히도 저의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정된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 여럿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사귀어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했습니다. 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만남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의지적 선택을 통한 결혼을 하고 그 후에는 노력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세심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정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헤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짝을 잘 못 만났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나의 짝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헤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성격적인 부정, 해결 불능의 중독, 혹은 심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혼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존 피스처는 “행복한 결혼은 좋은 상대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

니라 배우자에게 적응하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상대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적응하는 능력은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대상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뿐인 짝이라 생각하고,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 최고의 남자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배우자의 좋은 점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Mercy

금홍

William Shakespeare

The quality of mercy is not strained; 금홍의 본질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It drops, as the gentle rain from heaven,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빗방울과 같다
Upon the place beneath: 밑에 땅에 떨어지는
it is twice blessed, 그것은 이중적인 축복이 된다
It blesses him that gives, and him that takes: 금홍을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복을 받는다
It is mightiest in the mightiest; 금홍은 가장 능력있는 것 중에 가장 능력이 있다
It becomes the throned monarch better than his crown. 그것은 왕관보다도 더 좋은 옥좌에 앉은 군주가 된다

에 따라 금·은·납의 세 가지 상자를 내놓고 그녀의 사진과 돈이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한 사람에게 행운이 돌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다. 수많은 구혼자들 가운데 한 명인 모로코의 왕은 세 상자 중 겉모습에 현혹돼 금상자를 선택했지만, 조그마한 쪽지만 있었다. 그래서 결국 청혼에 실패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라곤(Arragon) 왕자는 은상자를 선택했는데, 이 역시 실패였다. 그 다음에 바사니오가 나와 납상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행운에 당첨됐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로는 유대인 대금업자, 사일룩과 안토니오의 친구이자 크리스천인 로렌조(Lorenzo)인데, 사일룩의 딸 제시카와 눈이 맞아 사일룩의 적지않은 돈을 갖고 도망친다. 이 시는 포사가 낭독하는데, 내막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 사일룩으로부터 3,000두카트(ducats)를 이자없이 빌리는 대신 제때에 갚지 못하면 허벅지살 1파운드씩 돌려받는 계약을 그와 맺었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배는 파산되고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법정에서 서게 된다. 바사니오는 다행스럽게도 거부의 딸 포사와 결혼하게 돼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한다. 돈을 갹절이나 준다고 해도 사일룩은 막무가내다. 계약대로 허벅지살 1파운드만 주면 된다는 것이다. 포사가 법정에서 남장을 한 채 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안토니오의 허벅지살 1파운드

를 도려내도 피 한방울이라도 흘리거나 혹은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넘거나 모자랄 경우 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 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계약서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고, 1파운드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일룩이 백기를 든다. 완악한 사일룩의 마음을 녹이는 시가 바로 이 작품인 것이다. 안토니오의 배도 파산되지 않아 많은 돈을 벌어들여 이겨 되고, 희극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지만 사일룩만은 슬프다. 금홍(자비)은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다. 인간에게서 금홍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간직한 사람일 게다. 금홍은 이중적인 축복을 지닌다는 사실을 시인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복을 받는다는 진리다. 금홍 또는 자비(Loving Kindness)야말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누우치게 하는 교훈적인 시다. 특히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가슴에 와닿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을 새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 감상〉

이 작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중에 등장하는 시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요 인물 가운데 상인 안토니오(Antonio)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그의 친구 귀족 바사니오(Bassano)는 나중에 거부 상속녀 포사(Portia)와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행운을 거머쥘다. 포사는 아버지의 유언



배호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John: I like my school, 전 저희 학교를 좋아합니다.
▷Do you like your school? 당신은 당신의 학교를 좋아하나요?
▷Maria: Yes, I like my school, too. 네, 저도 저희 학교를 좋아합니다.
▷John: Do you study at the library after school?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나요?
▷Maria: Yes, I do. I study 2 hours a day. 네,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합니다.
▷John: That's really good, 그것 참 좋네요.
▷Maria: I must go home now, 전 이만 집에 가봐야 합니다.
▷John: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뵙겠습니다.

English (중급 영어)

John spoke about him and shouted, "This is the one I told you would come! He is greater than I am, because he was alive before I was born." Out of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been given one blessing after another. The law was given by Moses, but Jesus Christ brought us undeserved kindness and truth.

요한이 그에 대하여 말하며 외치기를 "이 분이 바로 내가 오실 거라고 말한 그 분이시다. 그 분께서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그 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그 분의 충만한 은혜로 인해 우리는 축복 위의 축복을 받게 됐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과 진리를 가져다 주셨다. (요 1:15-17)

English (고급 영어)

Success is not the ke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key to success. If you love what you are doing, you will be successful. Honesty is the first chapter in the book of wisdom. There is no self-made man. You will reach your goals only with the help of others. Many people intend to measure their success with ranks, positions and wealth.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정직은 지혜의 책 가운데 제 1장이 된다.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계급이나 직책이나 또는 부로 측정하려 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버트와 에니 드디어 결혼? 동성애 교육 확산 우려



세사미 스트리트의 캐릭터인 에니와 버트

연방대법원의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마치 이를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듯, 발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동성 결혼 금지는 평등권 차별”이라는 선언적인 판결 문구 덕에 이 사회의 수많은 논쟁들도 한 번에 조용해졌다. 동성결혼 반대자는 마치 흑백 인종차별주의자처럼 그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민법 개혁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도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개혁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수개월의 노력 끝에 감히 꺼내들지 못한 카드가 바로 동성결혼자의 이민 초청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민권자의 동성결혼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예전부터 동성결혼을 적극 지지해 온 그는 “법부 등 연관 기관과 협력해 동성결혼자의 이민 지위 확보를 돕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이민법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개혁되건 간에 연방법 상에서 동성결혼자를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민 혜택을 동성결혼자들도 받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변화보다 더욱 심각한 곳은 교육계다. 과거 동성결혼이 허용된 일부의 주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자들의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법까지 가르치는 것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욕에서 발간되는 잡지 《The New Yorker》가 그 표지를 유명 어린이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의 버트와 에니로 장식해 논란이다. 표지에서 버

트와 에니는 서로를 다정하게 껴안고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이 나오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버트와 에니라는 두 남성 캐릭터는 극 중에서 롬메이트 사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수년 전부터 “이 둘이 이토록 오랜 기간 롬메이트라는 사실은 둘이 동성애를 나누고 있다는 암시”라고 주장하며 “둘을 공식적으로 동성결혼 시키고 관계를 커밍아웃 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일자 세사미 스트리트가 이에 “이 두 인형은 롬메이트일 뿐 서로 성적인 경험을 나누지 않는다. 버트와 에니는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아닌 그저 인형일 뿐”이라고 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잡지의 이번 호 커버스토리는 “버트와 에니의 행복한 순간(Bert and Ernie’s “Moment of Joy”)이다.

이에 대해 미국가족연맹의 팀 와일드먼 대표는 “부도덕하고 부자연스러우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우 비극적인 날”이라고 비통해 하며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가정을 한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다고 말씀한다”고 했다. 이 잡지의 이런 시도는 앞으로 동성애 지지자들이 어린이들을 향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교육을 시도할지 암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 교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美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기업에도 적용될까?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기독교 기업 하비로비(Hobby Lobby)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면제하고, 또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41개 주에 500여 체인점을 가진 공예전문점 하비로비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와 그 가



하비로비

족이 소유한 기업이다. 주일에는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기독교 절기 때마다 회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광고를 내고 각종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오바마케어(Obamacare)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일 130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비로비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의 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지급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벌금 납부 시한을 늦춰왔다.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배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시켜 버렸다. 이 결정 이후 새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 등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정부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항소법원은 결국 소송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카일 던컨 수석변호사(베켓종교자유기금)는 “그린 씨 가족 뿐 아니라 그의 사업, 다른 크리스천들이 소유한 모든 기업에게 주어진 큰 승리”라고 밝혔다.

낙태에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소

유한 마델(Mardel Inc),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와 같은 약 60여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선두에 선 하비로비의 승리는 향후 타 기업의 소송에도 영향을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정헌법 1조가 영리 목적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법원이, 이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송이 성립된 상황에서 하비로비가 싸울 내용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 문제다.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 큰 문제가 되자 종교단체에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기독교 기업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핵심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개인이 아닌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다. 이 결정 이후, 가톨릭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톨릭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용주도, (그가 종교 단체든 기업이든)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일에 강요당할 수 없음을 보여준 매우 결정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알사는 젊은 스타일에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미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미주예심전도대학 제3기 졸업식 및 제8차 공개세미나

미주예심전도대학이 오는 7월 8일 오전 9시 30분 제 3기 졸업식을 개최, 이어 오후 1시 30분 제8차 일일공개세미나를 연다.

이날 주 강사에는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가 나선다. 주최 측은 “쉬우면서도 탁월한 전도법으로

정평이 난 ‘예심전도법’ 세미나에 관심있는 목회자 및 성도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

▶주소: 1201 S. Beach Blvd #110 Lahabra CA90631

▶문의: (714) 401-9874

“우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4기 개강, 3개국 지부 설립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박승부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와 수료생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직 손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의료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이 지난 29일 오후 제4기 의료선교사 수료식을 갖고, 의료선교사 8명을 배출했다.

이들은 수료식을 통해 앞으로 복음전파와 세계선교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와 2부 수료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예배인도 김길현 목사, 대표기도 윤영목 목사, 성경봉독 김기일 장로, 설교 엄기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엄기환 목사는 “기독교는 소명의 종교”라고 운을 댄 뒤, “오늘 수료생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명을 받았다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먼저는 의료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동재단 대표 박승부 장로가 수료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생을 대표해 인사한 박미영 사모는 “수기치료를 배우면서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 병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3기 수료자인 임학섭 집사

는 “수기치료를 배우고 6개월간 2명을 치료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많았지만 기도하며 계속 치료했더니, 목 뒤에 있는 혹이 지금은 거의 들어갔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하니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로 23살인 한 불신자 청년에게 몸을 치료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수기치료를 통해 구원 사역이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들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를 전한 박승부 장로는 “2년 전에 시작한 이 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70명이 넘었다. 이제 1000명의 의료선교사를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게도 올해는 3개의 지부가 생겨 자체적으로 의료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90%의 사랑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10%의 정성 어린 섬김의 손길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4기생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영목 목사, 박미영 사모, 김길현 목사, 윤영란 사모, 박정숙 집사, 조창성 권사, 김기일 장로, 정희수 집사.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은 현재 5기생 수기치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LA와 OC 지역에서 20주간에 걸쳐 수강생을 소수 정예로 모집해 교육하며, 근육교정학, 체형교정학, 척추교정학, 영양물리학 등 이론과 실재를 통해 의료선교사로서 양성한다.

이인규 기자

[BIZ]

7가지 기능성 공인받은 최고 효능

고려대학교 발효홍삼 고려 발효삼



한국 최고의 대학 고려대학교에서 7가지의 기능성을 식약청(KFDA)으로부터 공인 받은 최고의 발효홍삼인 <고려대학교 발효홍삼 고려발효삼 (사진)>을 개발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고려대학교 발효홍삼 고려발효삼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엑츠생명)의 생명공학과 윤원석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들의 노력으로 일반홍삼으로는 효능이 부족한 분들, 장 기능이 약한 분,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들에게 특히 좋다. 주 성분은 우리 고유의 발효공법으로 홍삼을 발효한 발효홍삼으로 홍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흡수력을 강화하고, 특히 컵 파운드K 등 사포닌의 함량이 보장됐다. 또 EPA와 식물추출물을 혼합하여 총 7가지의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박스에 한국식약청의 인증마크와 7가지의 기능성이 표기되어 시중의 이름만 발효홍삼인 홍삼주스와는 완전히 차별된다. 또한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이 제품박스에 인쇄되어 있어 더욱 신뢰할 만하다.

현재까지 주로 액상 타입으로 홍삼이나

발효홍삼이 출시되었으나, 이번 <고려대학교 발효홍삼 고려발효삼>은 농축캡슐(500미리)타입으로 출시돼 1.5세 및 2세는 물론 미국인이나 전 세계인이 편리하게 효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고려발효삼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이 복용하면 좋다.

- ▷뛰어난 면역기능이나 항암효과를 원하시는 분(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
- ▷알러지나 아토피, 천식, 감기 등 면역기능이 약하신 분
- ▷기억력 회복, 신경퇴행성 질환(알츠하이머병 등)의 예방을 원하시는 분
- ▷평소 홍삼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 장의 흡수력이 약하신 분
- ▷평소 육체노동이 많은 분
- ▷기력이 약하신 분, 피로회복 등 기력의 보충이 필요한 정신교사
- ▷청소년, 수험생의 피로, 갱년기 여성, 노약자 등 기력회복이 필요한 분(가격은 2개월 분 한 박스 249달러)

▶문의: 세종바이오텍 LA지사 (213) 383-8899 ▶관련 웹사이트: www.sejongbio-tech.us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장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EM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성광**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기, 27기 수료생 배출, 현재 4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 질병 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씨나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트 전분)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 성경적요리노니,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문분야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벨리세(Calli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슨(Antror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평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끄는 목회자이며, 이가 평신도들이며, 선교를 행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미션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백성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신부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명(통)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업술)
오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서 2013명 합창단 선다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 개막행사 예정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임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2013년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10월 16 일(수)부터 18일(금)까지 3박4일 동안 여 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개최된 다. 이번 성시화대회는 얼마 전 미국에서 결 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위헌 으로 판결되고 캘리포니아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릴 예 정이다.

대회 주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 주관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미주 주관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하게 된다. 참가 대 상은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대표, 전 미 주에서 참여하는 미주대표단 선착순 250명, 메시아여성합창단 미주대표단 200명 등이 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13명의 글로벌 메시아여성합창단원이 참가해 16일 오전 10시 30분 개막행사부터 90여분간 찬양예 배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2013명의 합창단이 구성돼 개막행사를 여는 것은 세 계 최대 교회에서 최대 인원으로 최초로 여 성으로만 꾸며 공연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 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글로벌메시아여성합창단(지휘자 노 흥건 선교사)은 한국 1,813명과 미주 200명 이 참여해 구성되며, 합창단은 대회에 참석 한 후 18일부터 21일까지 평택, 천안, 서산, 보령, 대전, 전북 전주, 익산, 광주, 여수, 춘 천 인천 지역 교회에 방문해 공연을 펼칠 예 정이다. 또 선택사항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교회에서 공연이 예정

돼 있다.

이를 위해 합창단은 각 지역에서 공연 연 습을 펼친다. OC 지역은 매주 월요일 오후 7 시에 가디나장로교회에서, LA 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북가 주 지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뉴라이 프교회에서 진행된다.

대회 참가비는 왕복항공료, 호텔식사, 대 회등록비, 교통비, 팁을 포함해 1550불이며,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합창단 성시 투어에 참여할 경우 300불이 추가돼 1850 불이다.

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성시화 전략회의, 메시아 음악축제, 임진각 통일 기도회가 있다. 등록 신청서는 여권복사본 과 1550불을 미주성시화운동본부로 보내 면 된다(주소: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

6월 27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 해 있는 요즘의 현실"이라며 "성시화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이민교회, 세계 교회를 깨우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라고 밝혔다.

성시화 운동은 1972년 CCC 총재故 김준 곤 목사가 춘천복음회와 성회를 인도하는 가 운데 춘천을 제네바처럼 깨끗하고 아름다 운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비전 제시 를 하며 시작됐다. ▶문의: (213) 384-5232 / 미주여성합창단원 모집 문의: (323) 574-2747(지휘자 노흥건 선교사)

목회자 가족 수련회 "예수님 닮은 사역자"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 개최



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 주최 목회자 가족수련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 서부지방 회가 지난 24-26일 "2013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인디언 팜스 컨트리 클럽&리조트(Indian Palms Country Club & Resort)에서 개최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 미주총 회 서부지방회(회장 박용덕 목사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Indian Palms Country Club & Resort에서 개최했다.

50여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수련회는 "Servant Like Jesus, 예수님 닮은 사역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프로그램 은 목회 세미나와 기도회, 레크레이션 등 다 양하게 진행되며 아름다운 교외의 장을 이 뒀다.

수련회 주강사로 최종인 목사(서울 평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라며,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성육신적 사역자 △집중하는 사역자 △소통하는 사역자 △유용한 사역자 △변함없는 사역자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 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날 전도목장을 맡아 나선 박용덕 목사(남가주뉘내리교회)는 '예심전도를 통한 이민목회'라는 주제로 예심전도의 원리 에 대해 소개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 자신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덕 목사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예심전 도대학을 통해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선후 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 하는 좋은 모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취임식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초대 이사장 최문환 장로에 이어 신임 이사장 최대영 장로의 취 임식이 지난 2일 오후 6시 미주평안교회(담 임 송정명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지난 6년간 이사장으로 섬겨 온 최문환 장로는 이날 명예이사장으로 추 대됐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미주성결대, I-20 발행 자격 취득



미주성결대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어강의 확대 및 장학금 신설 우수 자원 지원 계획 발표

미주성결대학교가 지난 5일에 유학생에게 SEVIS I-20를 자체발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현지 지역자들에게도 입학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며 "앞으로 각국으로부터의 신입생과 편입생 등에게도 법적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성적과 기타 자격에 맞춰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주성결대학교는 23일 오후 5시에 I-20 발행 기념 감사예배 및 입학설명회를 학교 관계자 및 후원자 80여명이 참석해 열었다.

감사예배는 사회 조종곤 목사(이사장), 기도 이종길 목사(이사), 설교 차광일 목사(미주성결교 총회장), 축도 이기흥 목사(원로목사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입학설명회에서는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의 진행으로 I-20 취득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 유학생 및 편입생들의 입학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외국인 학생들의 신분유지에 관련된 정부의 법적 준수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학교는 I-20 발급을 기념해 영어강의 확대 및 특별장학금을 신설해 우수 자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회자와 상담전문가, 그리고 선교사 등 졸업 후의 사역 지원 등에 대해 진로지도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오바마케어 공개 세미나 열려



오바마케어 공개 세미나 전경. 강사로 나선 이원준 전도사가 개정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의료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전 인구의 16%인 4,900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엄청난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미보험자를 없애는 것이 이번 의료개혁안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바마케어 공개 설명회가 지난 30일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사랑헬스케어 대표 이원준 전도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한국 이민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의 혜택이 어떤 원칙으로 제공되는지 가구당 소득기준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득기준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이후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성도는 "평소에 궁금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알찬 세미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료개혁법은 비이민비자 소유자 및 불법체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이 어렵게 된다. 사랑헬스케어는 신분 문제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검진과 함께 병원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오바마케어 공개세미나를 원하는 단체 및 교회는 전화 (213) 700-9212로 문의하면 된다.

탈북 고아 돕기 위해 한인음악계 힘 모은다

LAKMA-LAKPO 주최 평화음악회... 디즈니홀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해 한인 음악계가 나섰다. 그간 콘서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돕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LA 한미음악인협회(LAKMA, 단장 최승호)가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LAKPO, 지휘 윤임상)와 함께 탈북 고아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음악회를 연다.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30분 윌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다.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베르디 레퀴엠'이다.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베르디를 기리고 정전 60년을 맞아 한국전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등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아울러 탈북 고아들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활동하며 우간다와 캄보디아 등 제3국의 결식아동을 도운 '한 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아더 한 대표)'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최 측은 "올해는 특히 베르디 탄생 200

주년을 맞는 해라 그 의미가 크다"면서 "감미로우면서 파워풀한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를 비롯한 한인 최초로 벨리니 콩쿨에서 1등 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베이스 김영복, 테너 로버트 맥널이 한 무대에서 베르디의 걸작을 빛내줄 것"이라며 이번 무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LA 코리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윤임상 지휘자는 "이번 무대에는 100여명의 합창단이 출연하게 된다. 특히 한인뿐 아니라, 백인,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 등 6개국 다인종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무대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콘서트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동참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티켓은 20~100달러.

문의: (213) 270-5010 / www.thelakma.org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래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재래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김민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길은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삼신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함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라클센터)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미라클 센터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용적,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흥심을 일으키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동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신구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령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성령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저씨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리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보증기간)

무료 프리미엄TS탈환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무료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차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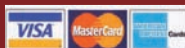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급연구소 수료
응급과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구약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이상명 | 흥성사 | 464쪽

2009년부터 2년간 '미주중앙일보'에 연재된 칼럼 '성서 인물 열전'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구약성서에서 주요 인물 뿐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인물 77명을 뽑아 이야기와 관련된 명화를 곁들였으며, 연구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인물의 이름 뜻을 소개하고 관련 성경구절도 넣었다.



목회, 톰 라이트에게 배우다

스티븐 커티 | 예클레시아북스 | 226쪽

영국 한 성공회 목회자가 톰 라이트와 그의 신학, 이를 적용한 목회 경험을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톰 라이트 저서에 담긴 깊고 다양한 성경신학의 통찰들을 간단하면서도 올바르게 요약 소개하고, 이를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칼빈의 예배 개혁과 직분 개혁

김현수 외 | 성약 | 1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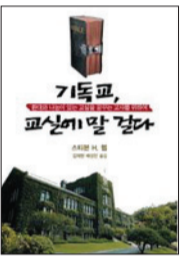
칼빈의 예배 개혁과 직분 개혁을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와 각종 주석, '제네바 교회법' 등을 주요 자료로 설명한다. 개혁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음을, 바른 예배 없는 개혁은 허망한 소리임을 주장한다.



기독교, 교실에 말 걸다

스티븐 웹 | 대장간 | 320쪽

오늘날 기독교 사학도 종교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종교는 대학에서 비판받으며 교화된다. 웹은 당당하게 기독교 신학자임을 밝히면서도 종교다원주의라는 현실을 인정한다. 지나간 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창의적 통찰을 제시하면서, 종교와 교육학에 얽힌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구성한다.



REVIEW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 없어”

A. 맥그래스 '과학과 종교, 삶의 의미를 말하다'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질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유래하고 그 성품을 표현하는 의미의 틀을 제공해 준다.”

과학과 신학을 중흥무진 넘나드는 탐구와 글쓰기로 '새로운 무신론' 교수 리처드 도킨스의 강력한 '천적'으로 떠오른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air E. McGrath)가, 과학만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신간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새물결플러스)>에서 펼쳐놓았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의미(meaning)'이다.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point)가 없다.” 우리는 사물들을 이해하길 열망하고, 큰 그림을 보길 갈망하며, 더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길 원하는데, 이런 욕구는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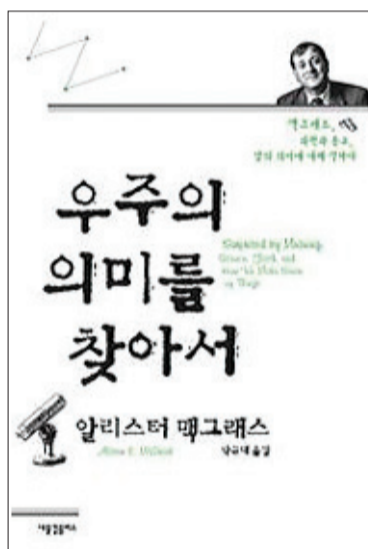
는 것. 기독교는 특히 사물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상황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맥그래스는 앞선 몇 권의 저작들처럼, 도킨스와 새로운 무신론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시작한다. 도킨스는 과학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가장 훌륭한 답-우주의 구조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사물의 의미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을 제공해준다고 대답하고 자신있게 선언하지만, 이는 자연을 수박 겉핥듯 읽어낸 말이라는 것.

“과학은 삶의 의미를 묻는 물음들에 답을 줄 수 없으며, 과학이 이런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과학더러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과학더러 그 능력 밖에 있는 물음들에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학을 욕보이는 일일 수 있다.”

자연과학은 자연계 안에 있는 패턴들을 밝혀내고 이를 설명할 더 심오한 구조들을 찾아내려고 애쓰지만, 맥그래스는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가장 최신의 자연과학적 결과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종교적 믿음에 대해 '증거도 없는 미신'이라며 거부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무신론'은 허무맹랑한 '밈(meme)' 같은 개념들을 꺼내놓으며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의 신념이자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는 것.

'한물간 무신론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저자는 '빅뱅'을 비롯한 최신과학은 우주가 '無에서 有'가 됐음을, 정교하게 조율돼 있음을, 인간 중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관찰 결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도 '우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음



알리스터 맥그래스 | 박규태 역 | 새물결플러스 | 248쪽

을 논증한다. “생물학 세계는 설계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창조와 섭리라는 전통적 기독교의 테마들에 비취

이 세계를 해석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기독교는 여러 지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과학이나 경험에 근거한 사상과 달리, 단순한 신앙에 의지하고 있다는 공격에 취약하지는 않다.” 저자는 넓디 넓은 우주 공간에서 보면 '티끌'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과학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아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래야 이 거대한 우주에도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올 초 번역·간행된 <과학과 종교 과연 무엇이 다른가?(LINN)>에서처럼, 맥그래스는 이 책에서 과학과 종교가 대립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신앙은 과학에 영감을 제공하며, 과학이 논할 수 없는 '삶의 의미'에 충분한 답을 전해주고 역설한다.

척추 전문 한방병원 장수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픈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활속에서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주시면 척추교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앉아 있을때**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수면을 취할때** 잘못된 자세 또한 **운전중** 잘못된 습관 등으로 척추에 변형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리며 뻣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세교정**과 **척추 교정** 및 **맞춤운동**으로 척추 디스크에서 해방되십시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장수한의원에서는 **20주년 특별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척추 통증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713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위기를 기회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새라 김 사모

'다음세대를 위한 전통적 가치'(TVNEXT.org) 공동대표

다음세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야... 특히 정치인, 판사, 변호사 나오도록 기도 필요

반대세력들(ACLU, Equal Liberty, GLSEN) 35개 주 향해 도전 선포

26일 수요일 오전 DOMA(Defense of Marriage Act - 미 연방헌법)와 프로포지션 8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안

타갑게도 5대 4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DOMA가 위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

1. 동성결혼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만 인정하던 것을 우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어떤 법안으로 결혼에 대한 정당성이 변할지 모른다는 의미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은 RFMA(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만일 RFMA가 통과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는 법적 정당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RFMA의 "누구나 사랑하는 두 사람"에서도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럽 나라들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모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치명적인 성적 죄악들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저지르

고 있기 때문이다.

2. 동성애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더 좋은 혜택: 그동안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받는 모든 혜택들을 거의 다 받고 있었으나, 결혼한 부부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몇 가지의 혜택들에서는 제외되었다가 이제부터는 세금, 유산상속, 건강보험 혜택들을 받게 된다.

DOMA를 소송했던 Edith Windsor이라는 여성도 자신의 파트너였던 여자가 죽으면서 남겨준 유산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미국 국가를 대상으로 DOMA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할 방향은?

1. 크리스천 학부모의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이 더 절실하고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세계관을 절실하게 가르쳐야 할 때이다.

2.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분야(정치, 법,

교육,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양육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 좋은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판사,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미국은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주위의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을 깨우자. 우리는 주위에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을 일깨워,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크리스천 문화와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잠들어 있다. 기독교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때, 그 나라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우리

가 그동안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통해 그리스도들에게 주어진 각별한 자유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반대 세력들의 승리,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나? 그들의 다음 목적은?

'프로포지션 8'은 대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기에, 이미 샌프란시스코 하원법원에서 내렸던 '위헌'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 반대 세력들(ACLU, Equal Liberty, GLSEN, 등등)은 지금 아직도 동성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35개가 넘는 주들을 향해 도전하겠다고 26일 아침에 선포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끝나지 않았다. 주님의 정의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또한 다른 주에 살 있는 교역자들,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격려해 그들이 이 영적 가치관 싸움에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바빠



현 순 호 목사

가까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악의 없는 호통을 친다. "아니,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몇번 씩 전화해도 연락이 안돼... 어디 좋은데 있으면 나도 좀 끼여줘."

그 말에 나는 "시비야? 부탁이야? 미안해, 전화 못받아서, 이름을 남겨 놓았으면 내가 곧바로 전화했지." 하고는 같이 웃고 지나갔다.

은퇴 전에는 조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눈코

뜰새없이 뛰면서 지는 시간까지도 즐겼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문제다. 가능한 한 게을러지지 않고 생동력있게 살려고 노력한다. 아침 5시30분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찬송가 소리에 눈을 뜨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밤 10시경 자리에 누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꿈나라로 가는 것으로 하루를 끝낸다. 그 중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

주로 눈을 통하여 얻는다. 한 포기 꽃이 피고 지는 것이나 밤하늘의 달의 변화에서도 무한한 진리를 찾고 지식과 지혜의 보고인 양서를 읽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너무도 많이 배운다. 귀를 통해서도 개미가 가는 소리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못 들어도 새소리나 바람소리를 통해 그 뒤에 숨어있는 높은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각 분야의 준비된 강의를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는다. 입을 통해서도 타인과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정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좋다. 어찌 그 뿐이랴! 늙어가면서 건강과 운동에 신경을 쓴다. 아침 식사 전에 사십오분간 전신운동을 하고 늦은 오후에는 주위에 있는 계곡을 따라 빨리 걸으며 가끔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헬스클럽에도 자주 나간다.

또 있다. 손자 손녀 쌍둥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일이다.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핏줄의 연장이라 재미도 있고 또한 보람도 있다.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남들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일과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공부 하는 일이다. 우선 구상을 하고 쓰고 고치기를 10여번 하고도 언제나 송구한 마음으로 신문사와 교회에 보내며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에

게 감사할 뿐이다. 빼놓을 수 없는 일은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시니어 커피 한 잔을 놓고도 무진장 한 소재를 풀어간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를 탐나들고 정치, 경제, 사회, 이민생활 등 많고도 많다. 더 재미있는 일은 이민 초기의 고생을 털어놓는데 저마다 자기가 제일 고생했다며 강변하고 더욱이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각색된다. 그래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며 웃고 또 웃는다.

미국인 친구 중 피터(Peter)라는 이름을 지닌 이는 여든을 훌쩍 넘겼으나 언제 만나도 건강하고 싱싱하며 또 재미있다. 아침 일찍 카메라를 메고 멀리 가까이 들이나 산에 가서 계절 따라 변화가는 천 가지 꽃들을 렌즈에 담아 현상해서 사진첩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눠준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지루하면 피아노를 치고 꽃도 가꾸고 자주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노년을 보낸다. 반면,

옆에 사는 짐(Jim)은 정반대다. 두 번의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 주로 컴퓨터에 매달려 돈내기 포커를 하며 한 달에 1천불 정도는 판다고 한다. 얼마나 짭짤한 수입인가. 그런데 짐은 나 이 일혼도 안 됐으나 운몽이 망가져 자기 말마따나 종합병원이란다. 자주 너머지고 팔이 부러져 깁스(Gips)를 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얼마 전에는 있던 차도 팔았다고 한다.

두 친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나는 백 번 죽었다 살아나도 피터처럼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하는 일이 많으면 그 일에 몰려 늙을 새가 없고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생각이 솟아오른다. 사랑을 주고 받을 상대(사람 또는 일)가 있으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해도 신바람이 나기 마련이다. 그런 일은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98세에 시집을 내고 100세가 넘도록 멋지게 사는 비결은 바로 근면이 있는 게 아닐까.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한국 천주교회 박해의 원인



김인수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2천년의 교회 역사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피 흘림의 역사 없이 교회가 안착, 성장한 일이 없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자라게 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와 수난 속에서 피 흘림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회의 박해사는 묘한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조정의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박해와 평화의 골을 따라 갔다는 것이다. 즉 천주교회에 호적적인 권력 구조에서는 교회가 평화를 맞으며 발전했고, 적대적 세력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혹독한 박해가 이어졌다. 이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사대부가에 먼저 전래됨으로써, 그들의 권력 투쟁과 연유되어 피해를 받는 구조였다.

물론 처음 접한 서양 문화와 종교가 전통문화와 종교와의 피해 갈 수 없는 갈등도 큰 몫을 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 초기 천주교회가 무수한 피 흘림의 박해를 받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종교가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로 오인된 때문이다. 임금도 없고 아버지 없는 종교라는 오해였다. 천주교회가 한국에 도래되면서 조상제사를 금하자 천주교 입신자들이 조상제사를 폐지하는 일이 시작됐다.

1785년 음력 4월 사헌부의 관리 유하원은 상소를 올리면서, "천주교는 다만 천(天)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아버지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써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케 함이 큰물이나 무서운 짐승의 해보다도 더하다"고 고발했다.

천주교회가 무군(無君)의 종교로 오인된 것은 신부들이 "왕의 명령보다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가르친 데 기인했다. 가톨릭교회는 한 나라의 왕보다 하늘의 주인이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 즉 '천주'(天主)님의 명령이 우선한다고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국왕의 명령과 천주의 명령이 배치될 때는 반드시 천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다. 이는 왕권의 상대화(相對化)로 당시 상황에서는 혁명적 사고였고, 대단히 위험한 가르침이었다.

유하원의 글에서 예시한 임금과 아버지가 있음을 모른다는 말을 입증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이것이 곧 충청도 진산(珍山)에서 일어난 '진산사건'이다. 윤지충(尹持忠)은 사촌 권상연(權尙然)과 함께 서학에 심취하여 천주교에 입교했다. 그는 천주교회의 가르침대로 전통에 따라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신주(神主)를 즉시 불사르고 제사를 폐지했다.

한국 천주교회사에 커다란 비극을 몰고 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가 조상 제사를 금지한 일이었다. 이 문제는 천주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순교자와 배교자를 속출케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됐다. 그러던 중 1791년 윤지충의 모친 권(權)씨가 세상을 떠났다. 신앙심이 돈독한 그는 모친의 사망에 상복을 입고 호곡은 하였으나 시신에 절하거나 위패를 모시지 않았고, 후에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국법과 같이 규정되어 있던 유교의 전통예를 거부하고 특히 중요 덕목 가운데 하나였던 조상 제사를 폐지하는 행위를 한 셈이었다. 조정에서는 진산 군수 신앙

원에게 윤지충, 권상연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신문케 했다. 이들은 끝내 배교를 거부하고 목 베임을 당해 순교했는데, 그 때가 1791년 11월로 윤지충이 33세, 권상연이 41세로서 조선 천주교회사에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됐다. 그들의 머리가 떨어진 후 여러 사람들에게 새 종교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군중들에게 5일간 효시(梟示: 목을 베어 높이 달아 놓고 못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케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인들은 참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국법으로 인식되었고, 수많은 교도들이 참수형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됐다.

제사폐지는 일찍이 중국에서도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근 100년 동안이나 의례(儀禮)의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난 문제였다. 예수회 소속 마태오 리치(Matteo Ricci)가 1601년 북경에 들어와 전교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행해 왔던 제사는 단순히 정치적 의식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기독교도 유교의 발전된 형태라고 선전하여 유교의 상제(上帝)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소위 보유론(備儒論)적 입장에서 선교하여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회 소속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러한 사

실을 간파했고 천주교가 유교와 혼합되어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프란시스코회 선교사들은 교황청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1715년 3월 교황 클레멘트(Clement) 11세는 조상 제사 금지에 대한 회칙을 공포했다. 1742년 7월에는 교황 베네딕트(Benedict) 14세 역시 조상 제사를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조상 제사를 인정한 예수회를 해산시키고 전 세계에 나가선 교하고 있던 수많은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에게 소환령을 내렸다.

북경 주교는 조선 교인들에게 제사, 의식(儀式), 배례(拜禮) 등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 숭배에 반대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히 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참으로 수많은 초기 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과 배교의 원인이 됐다. 조상 제사 금지의 유교 전통의 조선사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임에 틀림없었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가 무수한 순교의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무군무부의 종교라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은 기독교의 타문화권 정착이라는 과정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충돌 중 하나였다. (계속)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여덟번째 지팡이



이학진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리는 복음은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롬 10:9-10)이며, 로마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의 헌신이 율법의 완성(롬 12:1-12-21)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그 시대의 땅끝, 서바나로 (선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기독교 사상과 교리가 풍부하므로 성경이라는 보석 반지에 있는 보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고대 교회의 오리겐으로부터 20세기의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읽고 회개하였으며, 마틴 루터도 이 책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서신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논문 성격의 책으로 루터, 칼빈, 존 웨슬리, 칼 바르트 등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주석을 썼고 그들의 해설과 명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정의

1:2-6, 복음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 그(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씨)에서 나셨고(마 1:6),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16-17 복음에 대한 구원론적 정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두 개의 큰 단원과 첫째 단원은 여섯 개의 작은 주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11장, 기독교의 교리적인 부분(복음과 구원)

1:1-17, 복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며

1:18-3:20,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3:21-5:21, 구원,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요 3:16)

6:1-8:39, 구원의 단계, 그리고 구원이란 죄로부터 해방된 생활을 말합니다.

9:1-11:36, 구속,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하시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규정하고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 위하여(구원받기 위하여) 성도는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롬 8:1-2).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롬 8:13)고 말씀합니다.

2) 12-16장, 기독교의 윤리적인 부분(신앙 생활에서의 이론과 실제생활

의 일치, 참고 행 9:43)

12:1-15:13,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15:14-16:27, 결론과 안부

15:14-21, 바울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한 회고

15: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참고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선교의 기점으로 갈라디아지방(비시디아 안디옥), 아시아지방(에베소), 마게도니아지방(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고린도) 그리고 일루리곤 지방(마게도니아 지방 북쪽의 로마의 행정구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교리장, 1-8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 지를 보여주며(9-11장), 의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윤리장, 12-16장) 격려하기 위하여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보석, 로마서

AD 55-58년경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헬라(고린도)에서 머무르는 석달 동안에(행 20:1-3), 바울이 자기 받은 말씀과 영적 은사를 로마교회에게 알리므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고 또 서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1:11이하) 또한 바울이 계획하는 서바나 전도여행에 동역해 줄 것을 바라고(15:28,29)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기초 위에 더 자세히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위대한 구원의 진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Cover Story

외조부 명예회복과 기념비 건립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정명자 권사



순교자 김익두 목사의 외손자 며느리인 순명자 권사가 뉴욕을 찾았다. 순명자 권사는 외조부의 명예회복과 기념비 건립을 위해 연주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순교자 김익두 목사의 외손자 며느리 정명자 권사(달라스 좋은씨앗교회)가 뉴욕을 찾았다. 정명자 권사는 6월 21일 뉴욕주신교회(담임 김용익 목사) 간증찬양집회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며 찬양간증 집회를 진행했고 30일 선한목사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마지막 공연을 펼쳤다.

달라스에 거주하는 정명자 권사는, 근래에 찬양간증집회를 중단했다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다. 외조부 김익두 목사의 순교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다. 정명자 권사는 김익두 목사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기록으로 인해 신사참배를 한 것으로 후세들에

게 오해받아, 뒤늦게야 순교자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지금도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정명자 권사는 신사참배에 대한 오해받은 부분을 설명할 때면 노쇠한 몸에서 어디서 힘이 솟는지, 김익두 목사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초를 겪었던 상황들을 열정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정명자 권사는 KBSTV 관현악단에서도 활동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트리오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그런 그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다.

세상의 화려함을 떠나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길로 삶을 전환했던 정명

자 권사의 찬양간증집회는 그 자체로도 은혜가 있지만, 그의 집회가 주목 받는 것은 바로 김익두 목사의 순교자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명자 권사는 김익두 목사가 서울 승동교회를 8년째 시무하던 때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종로경찰서에서 형사를 보내 달라고도 하고 협박도 했으나, 김익두 목사가 끝내 굴복하지 않자 강제로 체포해 극심한 고문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한 고문이 1개월간 지속됐고, 김 목사가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됐을 때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서 인계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승동교회 강단에

는 두 번 다시 설 수 없게 됐다.

정명자 권사는 김익두 목사가 결정적으로 오해를 받게 된 계기가 일제에 의한 사진 조작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려 갔던 김익두 목사를 일본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인근의 신사로 끌고 가 참배를 강요했는데, 그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자 거꾸러뜨리려고 견어 찾고, 신사 앞에 쓰러진 그 때에 사진을 찍어 마치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정명자 권사는 “외조부 김익두 목사님이 당한 오해는 정말 억울한 것이었고, 지금도 오해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김익두 목사님

이 신사참배에 절대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평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자 권사는 8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음악 트리오로 손꼽히며 국내 행사 중에서도 국민급에만 참석했던,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정 권사의 실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정명자 권사는 최근 건강 등의 이유로 공연을 중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명자 권사는 외조부 김익두 목사의 명예회복과 기념비 건립을 위해 다시 연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권사는 이번 뉴욕 방문을 시작으로 미주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아하!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요? 음...”
“어서 얘기해 봐! 네가 평소에 되고 싶은 꿈이 있잖아?”
“저는요, 커서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뭐, 현모양처?”
“네, 현모양처요.”
“아니, 애는 그것도 꿈이냐?”
요즘 미혼 여성 가운데 아마 현모양처가 꿈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필자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나 장래의 직업을 기록하는 란에 ‘현모양처’라고 쓰기도 했다. 친구들은 이런 나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느냐고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가장 소박한 소망이면서도 큰 꿈이었으며, 여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전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생활을 해 왔고 이에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았던 시절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남편의 입맛에 맞게, 밥상도 남편 위주로 차렸으며, 남편의 옷에 온갖 관심을 기울였다. 아내는 항상 그리고 철저히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였다.

이 과거보다 더 부각되다 보니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모든 신경을 자녀에게 쓰고 있으며, 또는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어머니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양육태도 등은 순수하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용도 많다. 성공을 위하여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다 보면 창의력을 잃게 하고, 독립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반발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남편만을 섬기며 뒷바라지하는 일 때문에 자녀가 소외당했을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성공시켜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남편이 소외당하는 시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로 할 것이다.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에 “일어나 감사하며”(잠 31:28), 남편에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잠 31:29)라고 칭찬받는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이다. 이처럼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아내와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남편과 자녀를 더 부지런히 돌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전오섭 목사, 황미선 사모

아내 역할, 엄마 역할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갹술로 만든 발효삼상”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7월 10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900.2399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America's Best Warranty

21C 한국교회

왜 '17C 미국 이야기' 를 읽어야 하나

서울서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 여는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는 심현찬 원장(왼쪽)과 정성욱 대표가 컨퍼런스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열린교회(담임 김남준 목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로 보는 개혁주의 목회 세미나'가 열린 데 이어, 오는 8월 오후 1시부터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에서도 '2013 서울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와 조나단 에드워즈: 상실의 시대 한국교회 영적 나침반, 에드워즈'를 주제로 정성욱 교수(테버신학교)가 '믿어 순종

케 하나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실천적 영성', 이상웅 교수(총신대)가 '열매로 알리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랑과 열매>에 대한 고찰', 조현진 교수(한국성서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한국교회', 심현찬 목사가 '상실의 시대의 영적 모범, 조나단 에드워즈'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로 '대각성운동'을 주도했으며, 교회에서 쫓겨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프린스턴 대학 학장에 취임해 스스로 '실형 대상'을 자처하다 소천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신앙감정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등이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큐리오스 인터내셔널(대표 정성욱 교수)과 공동 주최하는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 심현찬 원장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컨퍼런스 개최 목적은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물론 여러 해석과 대안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의 롤 모델을 던져주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가 '신앙의 밸런스', 즉 균형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비롯해 참된 중생과 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이 결핍돼 있는데, 이러한 균형을 삶으로 보여준 조나단 에드워즈를 배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신학적이지만 철저히 목회적인 강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왜, '조나단 에드워즈' 인가

"한 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최선을 다해 목회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신학과 목회의 밸런스를 삶으로 보여주셨고, 교회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된 인물이다."

물론 사람들은 '17세기 미국 이야기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만 해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일컬어 '교회사에서 최고이자 에베레스트'라고 했다. 그 분의 신학과 목회, 삶이 일관성이 있고 탁월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의 가장 큰 교회에서 23년간 목회했지만,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화되기를 원하다 해고당했다. 그리고 나서 서부 지역으로 가서 또 최고의 작품들을 써 냈다. 다른 토

양이고 시간이었지만,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곳에서 적용할 내용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에드워즈가 전부라는 말은 아니다. 교조적으로 빠져선 안 된다. 에드워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이다. 잘못 해서 큰 그림을 놓쳐선 안 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그를 '사도 바울과 가장 비슷했던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거대한 산맥과 같은 것을 느낀다. 그의 글은 심지어 기독교인 아닌 이들에게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컨퍼런스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탁월한 전기작가 이안 머레이는 그의 전기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흥의 전주(前奏)와 같다'고 했다. 굉장하 의미있는 말인데,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흥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닌, 실질적 부흥 말이다. 그리고 '실천'이 부재한 이 시대에 삶과 목회가 일치하는 롤 모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즈의 영성과 한국교회 회복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 중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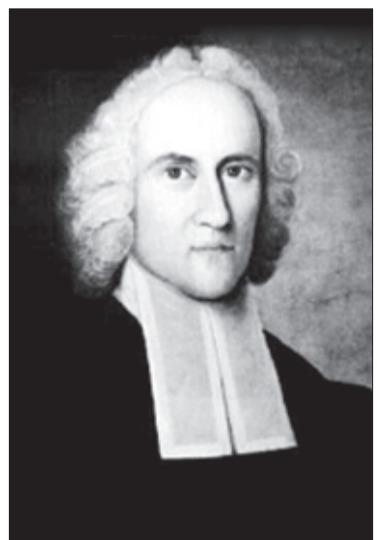
마음으로 컨퍼런스에서 함께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조나단 에드워즈 읽기'가 상아탑에 머무르고 있는 신학을 현장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교회 회복을 사모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모두 많이 오셔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미주 지역 한인 목회자들은 재교육이나 다양한 세미나 등을 경험하기 힘들다. 그래서 3년 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지성이 균형잡힌 리더들을 양성하고자 연구원을 창립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엡 2:10·포이에마)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저희는 목회자들을 아낌없이 섬기면서 교제하고 연대하도록 장을 만들고 있다. 어거스틴부터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 C.S.루이스와 로이드 존스 등을 읽고 토론하는데, 화석화된 학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들의 전기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대웅 기자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

MUSIC

오혜진, 1집 'DRAMA' 발표... 하나님의 위로 표현

CCM 가수 오혜진 전도사가 1집 앨범 'DRAMA'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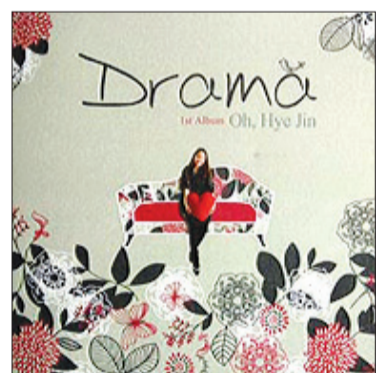
오 전도사는 'DRAMA'를 통해 산뜻하고 풋풋하면서도 풍부한 영성과 감성을 드러냈다. 반복적인 가사와 음이 아닌, 새롭고 신선한 CCM을 느끼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이 앨범을 추천한다.

"하나님 각본 속에 예수님 연출 속에 아름다운 배역이 될래요/ 네모난 성경은 나만의 대본이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기뻐할 때나 슬

플 때에도 아름답게 이어가요"

주제곡인 'DRAMA'의 도입부 가사다. 이 노래는 오 전도사가 직접 작사·작곡했다. 가사에서 예수님을 연출자, 성경을 대본으로 표현하여 신선함을 선사한다. 오 전도사는 노래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기에 언제나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드라마라는 것을 나타냈다. '사람을 주는 사람(하진 이를 위한 노래)'에서는 딸 '하진'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다.

앨범은 '하루의 시작'(작사 이태훈, 작곡 류진성), '드라마'(작사, 작곡 오혜진), '주님의 꿈을 위해'(작사, 작곡 설경욱), '내게 있는 것'(작사, 작곡 이태훈), '할렐루야'(feat 최용준, 작사, 작곡 최하나), '고향'(작사, 작곡 이태훈),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작사, 작곡 설경욱), '사랑을 주는 사람'(하진 이를 위한 노래), 작사, 작곡 오혜진), '거절할 수 없는 사랑'(작사, 작곡 이태훈), '거룩한 그루터기'(작사, 작곡 김기태), '하나님의 사랑은'(찬송가 299,



작사, 작곡, 편곡 이태훈)으로 구성됐

다.

예원음악신학교 유희기 총장은 "오혜진 전도사가 한국 CCM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 앨범은 일상의 언어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앨범 문의는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yejin.oh2naohj012@nate.com> 로 하면 된다. 신태진 기자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 (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mlimretreat.com / www.retreatkamlim.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백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완전 인가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콜! 자동차 매트 커버

\$30

줄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력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메오 갤럭시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젊은 세대로 구성된 미주개혁신대, 글로벌 전문가 양성 중

윌리엄캐리대학과 MOU 체결, 가을학기 코리안박사학위 프로그램 신설

LA한인타운 중심(윌셔와 윌턴)에 위치한 23년 전통의 미주개혁신대학교에서는 2013년도 가을학기를 위해 제인 박 이사장, 크리스 윤 학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윌리엄캐리대학교의 코리안박사학위(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주개혁신대학교 설립자인 박요한 총장이 소천한 이후 맏딸인 제인 박 이사가 새로운 학교이사장으로, 참된 교육을 실천하도록 유업을 받들고 있으며 아주사피서픽대학 교육학 교수인 크리스 윤 박사가 학장으로 부임했다. 이밖에 교내 임직원 대부분이 1.5세대로 재구성돼 실력과 소명있는 대학을 목표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크리스 윤 학장과의 일문일담.

-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미주개혁신대학교는 23년의 역사를 지닌 신학교로 앞으로는 신학을 기초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할수 있는 종합대학으로 세워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현재 교수진은 15명, 재학생은 약 100여명이 있으며,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운영하

고 있다. 목사안수는 철저한 교육과 목사고시를 합격한 후 주류교단과 한국교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윌리엄캐리대학 한국어 박사과정 소개를 한다면

주류 신학교를 능가하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최근 선교학의 전통을 자랑하는 윌리엄캐리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이 대학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부들도 새롭게 창설됐다. 박사과정을 한국어로 배울 수 있고 윌리엄캐리대학의 “국제개발박사학위”(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받을 수 있다. 전공으로는 선교, 기독교교육, 글로벌리더십을 공부할 수 있고 윌리엄캐리대학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집중지도와 논문을 위한 박사학위 위원회 (Doctoral Committee)를 통해 교육받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가을학기 시작하는데 첫 그룹을 모집 중에 있다.

-학교의 비전을 말한다면

미주개혁신대학교의 목표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육을 넘어서,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분야에서든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 평신도사역 혹은 영향력 있는 각 분야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비전이 있다. 현재 본교 다수의 교수들이 주류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어는 물론 영어 강의를 통하여 차세대가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전문가들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교육 및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인 소개를 해달라

고등학생 때 LA에 가족이민으로 오게 됐다. 청년 때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4년간 의료 선교를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다. 탈봇(Talbot)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퍼듀(Purdue)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바이올라와 칼스테이트 노스리지(CSUN) 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주사피서픽대학에서 교육심리학(Educational Psychology) 교수로 8년째 가르치고 있다.

-더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미주개혁신대학교는 신학 중심으로 교육한다. 세부 전공으로는 상담학, 유아교육, 심리학, 기독교교육 등의 다양한 전공이 개설돼 있으며 특히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많다. 매학기 교양 과목으로 영어, 문학, 음악, 대중연설법, 세계문화와 이해, 미디어(영화, 연극) 등의 과목들이 있다. 현재 교회사



크리스 윤 학장

역자나 선교사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있다. 유학생들도 공부할수있도록 1-20를 발행하고 있다.

☎문의: (213) 736-6500

☎주소: 4009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0

토마스 맹 기자

나성금란교회 윤선식 목사 은퇴 “앞으로 더 채찍질을...”

나성금란교회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담임 목회자로 사역한 윤선식 목사는 은퇴 축하예배를 6월 30일 오후 4시에 예배당에서 드렸다.

이날 윤선식 목사는 고별사에서 가족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목사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별명이 ‘작은 전도사’였다. 부모님이 내가 아장아장 기어 다닐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며 “사실 내가 여러분을 목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목회했다. 목회를 돌아보면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을 때가 훨씬 많아 감사하다. 어떤 유명한 야구 감독이 한 말 중에 ‘시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생각난다. 앞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별사를 한 양세직 장로는 “목회자의 길을 40여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목회 가운데 지치고 주저앉고 싶었을 텐데 섬김의 목회를 펼쳐온 것에 감사를 드린다. 목사님과 사모님 내외의 깊은 사랑과 끈끈한 정에 다시



(사진 왼쪽) 윤선식 목사 (오른쪽) 지난 30일 열린 나성금란교회 담임 은퇴 축하예배 전경.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예배는 사회 강현중 목사, 감사기도 박성환 장로, 설교 이성현 목사(드림연합감리교회), 축사 유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송



이보영 장로, 축도 백승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4년연속 통신신문 최고 히트상품” 토마스 맹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4년연속 통신신문 최고 히트상품”

집전화 절약의 기회

iTalkBB SUMMER FESTIVAL

빅히트 상품

아이토크비비 미국 무제한 플랜

\$9.99/월

- ▶ 미국 전지역 무제한 통화
- ▶ 한국 유선전화로 매월 60분 무료 통화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선트
-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행사기간 2013년 7월 15일 까지

지금 가입하시면!

우리집 전화 요금 7,8,9월 까지 무료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안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1.800.872.2902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독립기념일맞이 BIG EVENT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82 +TAX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STK #398513)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3 +TAX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22,375 (STK #713499)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ROYALTY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419 +TAX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STK #069579) Demo
LEASE CASH \$1,000 COMP. REBATE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